

槐雲칼럼

경순왕릉(慶順王陵)을 참배하고

■ 槐雲 權海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며칠 전 한국 DMZ 관광협회와 (사) 21세기군사문헌연구소가 주관한 ‘크리 마DMZ여행’에 초청을 받아 서부전선 비룡부대 DMZ지역을 관광하고 경순 왕과 마의태자 묘소를 참배하였다. 필자는 이번 여행에서 20여 년 전 군 복무시절에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방문은 큰 의의가 있었다. 첫째는 방문자 대부분이 예비역과 가족들로 옛 군대생활을 회상해 보고 추위 속에서 국토방위에 고생하는 장 병들을 위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 다. 두번째는 신라와 고려의 역사통합의 교훈과 오늘날 남북한의 미래를 진단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마포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자유로를 따라 통일동산 전방대와 임 진각, 파평을 경유하여 임진강 장남교 를 건너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지역에 도착하였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송 의전(崇義殿)이었다. 송의전은 고려태조 등 4대왕과 16 명의 공신을 봉향하기 위한 사당으로 고려태조 왕건의 원찰이 있던 양양재 (仰嶽齋)가 있던 곳을 이성계가 397 년(태조 6년)에 고려유민들의 회유책 으로 고려태조의 사당으로 지었으며 1451(문종1년)에 송의전으로 하고 고 려후손들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송의전을 보고 낙엽에 쌓인 평화누 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을 한 시간 정 도 걸었다. 주상절리(柱狀節理)로 유 명한 아미산 잠두봉에 올라보니 옛날 고구려가 백제, 신라와 싸웠던 우측으 로 마진리 호로고루 성, 좌측으로 고랑 포구 당포성, 전곡 은대리 성곽이 한

눈에 보였다. 주상절리란 마그마의 냉각과 응고에 의해 생긴 다각형 기둥모 양 급으로 현무암에 많으며, 제주 중문 대포주상정리와, 경주양남, 연천 등지 에 있다. 잠두봉에서 내려와 송의전 입구 고 려 가든에서 매운탕으로 오찬을 하고 비룡부대 최 좌단 승전 전당대를 방문 했다. 전당대에서 전방현황에 대해 브리핑 을 받고, 전당대에 올라 망원경으로 철책선과 피아(彼我) 관측소를 살펴보면 서 지난 8월4일 지뢰사고가 있었던 인 접부대 초소 등도 두루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방한계 철책선 순찰로를 도보로 답사하면서 경계임무에 수고하 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가져 간 교양서적 1박스를 전했다. 전당대 견학을 마치고 1968년 김신 조 일당이 침투했던 1.21 간첩 침투로 를 찾았다. 당시 이 지역은 미군이 경 계를 담당한 지역이었지만 그 사건으 로 예비군과 살미도 특수부대도 창설 되었다. 다음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남북의 최대 무역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 포구를 견학했다. 고랑포는 6.25 전쟁 전에 600여 가구가 거주했으며 화신백 화점 분점까지 있었다. 전쟁 후 마을은 사라지고 지금 새로운 고층 건물 건설 붐이 한창이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곳이 경순왕릉 (敬順王陵)이었다. 경순왕릉은 신라 56대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름 傳)의 릉으로 경주를 벗어난 유일한 왕릉이 다. 마침 왕릉 관리자가 경주김씨(慶州金氏)여서 안동권씨도 경주김씨의 후손으로 왕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 의 제(齊)나라는 서기 479년부터 502년까 지 겨우 23년 밖에 유지하지 못한 왕조였 다. 그런데 이 짧은 시기에 황제에 올랐다가 쫓겨난 사람이 많다. 한 사람은 율림 왕이었고, 다음으로는 동훈후였다. 동훈 후는 겨우 3년 남짓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양(梁)나라를 세우는 소연(蕭衍)에게 쫓겨나는데 그의 아버지는 율림왕을 쫓아낸 명제였다. 이러한 명제는 정치를 잘 해 보겠다고 사촌형의 손자인 율림왕을 쫓아낸 다음에 그 동생을 황제로 세웠다 가 자기가 황제에 올랐으니 손자 항렬의 두 명을 쫓아내고 황제가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명제는 자기 뒤를 이을 아들 만은 교육을 잘 시켰어야 하는데, 영 그 려지가 못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동훈후는 황제로서의 자질이 없었다. 예컨대 동훈후는 반귀비(潘貴妃)를 무척 야킨 나머지 그녀의 아버지를 아장(阿丈, 장인)이라고 불렀다. 또 그가 가까이 하 는 매종아(梅蠶兒)·유령온(俞靈溫)을 아 형(阿兄, 형남)이라고 불렀다. 사사롭게 야 그리 할 수 있겠지만 황제가 그리하는 법도는 없는데, 스스럼없이 이 호칭을 깨 버린 것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아까는 반 귀비 집에 가서 몹스 스스로 물을 길거나 요리사를 도와 요리를 만들었다. 좋은 사 위 노릇을 한 것이라 할 것인가? 또 황제의 후위를 담당하면서 칼을 차고 칙령을 수행하는 도칙(刀勅)과도 가까 이 지나다가 드디어 도칙의 집에 가서 놀 며 연회를 하였고, 또 길하거나 훔찬 일이 있을 때면 번번이 가서 축하를 하거나 조 문을 하였다.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칭찬 할 수 있을까? 또 내시 가운데 나이가 13~14세였던 왕 보손(王寶孫)이란 사람이 있었다. 왕보손 은 자칭하여 ‘미친 아이’라는 뜻으로‘창자(倂子)’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그 행동 거지를 짐작할 만하다. 그런데 동훈후는 이 내시를 무척 야했다. 그래서 그러한 지 이 아이는 안하무인이었다. 대신들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었으며 심지어는 말을 타고 궁전으로 들어와서 황제에게 성을 내며 꾸짖기까지 했다. 그래도 동훈후는 이를 용납했다. 이해할 수 없는 파격(破

너무 자유분방한 황제 동훈후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격)이었다. 또 아까는 반귀비 를 위하여 금을 깎아 연꽃을 만들어서 땅에 붙여놓고 반비 (潘妃)로 하여금 그 위를 가게하며 말하 였다. “이 걸음걸음마다 연화(蓮花)가 피 는구나.”라고 시를 읊었다. 애듯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니까 아름답다고 칭찬해야 할까? 황제 동훈후에게 이렇게 총애받는 사람 들은 이를 황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멋대로 백성들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멋대로 죽였다. 가히 나라꼴이 아니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힘없는 백성들이 야 이에 항거한 마디 못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어갔다. 동훈후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양(梁)무제로 알려진 소연에게 쫓겨 나고 말았지만, 이러한 동훈후의 파격적 인 행동은 그 뿌리가 깊은 것이다. 한(漢)나라 시대에 유가사상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의 신분을 구별해 놓고 이 신분에 따라서 행 동하게 하였다. 그것이 통치하기에 편했 기 때문이었다. 신분에 따라서 질서정연 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자손들에게 ‘금수저’·‘흙수저’를 남 겨 놓게 되었으니 이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강력한 권력이 무너진 전·후한이후에는 폭발적으로 규 제를 깨고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었다. 우리를 엮어매는 모든 규제는 나쁜 것 이고 이 규제를 깨는 파격적인 것은 멋있 어 보였던 것이고 동훈후도 그런 시대 분 위기 속에 살던 사람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뒤로 우리 사회에도 유교적 속박이 싫 다고 서양의 파격적인 자유를 즐기는 사 람이 늘어 가서 마치 동훈후와 같은 생각 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동훈후가 그 파격적 행동 때문에 파멸했듯이 이 절도 없는 이 파격적 자유 가 우리 사회를 또 좀 먹고 있다. 또 얼마 나 더 지나야 이성적으로 규제와 자유를 균형 있게 누리는 사회가 될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이달의 시

시인 권장섭 (정수철김(주)회장)

두레 박

목직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했다 최소한 하강 기류에서는 그랬다

졸보기를 마주한 거인의 얼굴처럼 그렇게 그렇게 작아지고 있었다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리고 너울처럼 춤추고 있었다 최소한 상승 기류에서는 그랬다

확대경을 마주한 우주인의 얼굴처럼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다

화백세상(和白世上)을 열자③

■ 一沙權正孝 (우리정신연구회장·애국단체협의회 고문)



(지난호에 이어) 韓.中.日은 얼굴 모양 體形 문자등 同質性과 유사성을 너무 많이 共有하고 있다. 세 나라가 “和白”정신으로 뭉쳐야 怒濤같이 밀려오는 國際投機資本에 굴하지 않고, 美洲圈 ETV권과 어울려 自然속의 인간으로서 活氣 넘치는 세 世上 화백세상을 열어야 수 있다. 韓.中.日은 더 이상 些少한 것에 메달 리는 소아병적 行態에서 벗어나 같은 框國의 후손으로서堂堂하게 世界史를 엮어갈 수 있도록 세나라 指導者와 국민들은 生命重視 相生共榮 萬物俱存 지표인 “和白”精神으로 거듭 나아함 이 시대적 召命이라 아니할 수 없다. 世界 미래학자들은, 지금의 최첨단 情報化시대가 마감을 하고 학문 기술 기업등 모든 영역에서 結合하고 協力하는 “融合”의 시대가 곧 到來 한다고 豫測하고 있다. 융합이란 바로 和白정 신의 한 부분이 아닌가? 융합시대는 和白世上을 여는 端緒가 될 것이다. 人類史는 원시부족사회-농경유목사 회-산업혁명사회- 첨단정보사회인 現世까지의 發展 아닌 인간 성숙을 위한 進行過程(필자 소견)이었을뿐 생활에 는 편리해졌으나 인성은 원시시대보 다 나빠졌다. 이제 온 生命이 서로 어 울려 살아갈 수 있는 和白世上이 열릴 수 있도록 賢人과 道人 知覺있는 隱遁者들은 遁辭 말고 양장에 나서라/ 三. 結言 “和白世上.”을 열려면 첫째, 在野.敎壇 사학자들이 從來의 상호 비방과 不睦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합심협력하여 新羅 이전의 “화백”을 時急히 깊이있고 폭넓게 연구검토 定立하여 이를 初校.中校.高 校大學의 사회 國家 國定敎科書에 상세히 기록을 하게 하고 이 교과서를 根據삼아 선생들이 深度있게 學生들을 가르치고, 社會敎育家들은 온 百姓이 “화백”의 참뜻을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록 풀이하여 세상 곳곳에 살고있는 桓仁後孫들부터 화백교육을 실시하고 全人類를 대상으로 화백정신 가르칠 召命이 주어져 있다. 둘째, 家族構成員 三代가 한 집에서 살수있는 家屋構造로 고치거나 지어 야 하고, 政治는 정략이나 패거리 不正板 놀음이 아닌 “和白制度”를早速히 시행해야 하고, 經濟는 세계적 기업인 三托그룹이 최고의 경영가치로 내 세운 相生에서 더 나아가 “和白”경영으 로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에서 사회 貢獻度를 重視하는 企業으로 경영목표 를 바꿔야 하며, 社會團體는 경실련 전 사무총장 俞在賢(도시공학 박사)을 본 받아 단체운영을 화백회의제로 迅速히 탈바꿈 해야 할 것이요 그래야 사회문 화 모든 環境이 和白世上으로 吸入 될 것이다. 셋째, 교육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문 화 체육관계 指導者들이 既存의 가치 관 사고방식 외형모방에만 치우친 安逸한 慣性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肯定的인 進取的인 慧眼으로 자학적인 발상을 轉換 해야한다. 특히 知覺人이라면 우리의 오랜 歷史부터 익히고 배 워 先賢들이 남겨준 모든 명칭 함부로 바꾸지 않고 그 명칭속에 담겨있는 오묘한 뜻을 스스로 깨닫고 헤아려 이를 널리 알리는데 솔선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對北 관계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내세웠으나, 2000만명의 北韓住民(비공산당원)들에겐 도움 되지 않았다 현정부는 和解協力政策으로 바꿨는데 名稱 바꾸려면 “和白”政策으로 定함이 옳다. 햇볕과 包用 그리고 화해협력이란 뜻은 “和白”에 모두 內包하고 있다. 특히 2500 여년전 孔子는 設卦傳에 艮方[한국]으로 人類文化의 모든 眞髓가 모여들어 세상 中心地가 되고 세상 萬事 시작과 끝 맺음이 이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옛날 말을 지어서로 의소

통을 이곳에서부터 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百姓들은 깊이 省察하고 “和白世上.”을 열 준비를 하자. 二分法的 흑백논리 既存의 사상과 이념 철학 그리고 지식 과학 信仰으로 는 急變하고 있는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近來 세계 곳곳에서 惹起되고 있는 각종 分爭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克復하기 어렵다는 것이 立證되고 있다. 印度의 詩聖 타골이 말한 東邦의 빛이란 바로 弘益人間 制世理化的 和白制度가 아닐까? 바로 “和白世上.”을 여는 것이 아닐까? 지구촌 여기저기 흐터져 살고 있는 우리桓仁 후손들이 自覺하여 새로운 세상, 宇宙空間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生氣가 넘칠 수 있도록 “和白世上.”을 열어가자 孔子 說卦傳에는 ‘艮東北設卦之也 萬物之所 成終而所 成始也 故曰 言成 乎民’...우리 俗談에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先生노릇 한다”고 우리 百姓들이 남과북, 동과서, 계층간, 세대간, 師弟間으로 편을 갈라 分裂 다투고 있으 니 日本과 中國이 이 틈을 노려 長孫 行勢 하려는 것이 아닌가?

人類史 태조 桓(한)國에서 인간 醇化를 위하여 桓王은 三倫九誓를 반포하고 蘇塗에서 父(天道) 師(地道) 君(人道) 이三道로 사람을 訓育하여 왔으나 春秋戰國시대 孔子가 사회혼란을收拾하고자 父師君을 뒤집어 君師父로 하였으니 이제 뒤집힌 君師父를 父師君으로 賢人이 나서 바로 잡아야한다. <끝>

마음의 창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 권 도 갑 (원광대지텔大 외래교수)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이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 인 줄 몰랐습니다. 당신을 분별하고 시비하 였습니다. 비난하고 욕하였습니다. 문제 를 지적하고 고치려 하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시비하고 판단하는 것이 며 나를 비난하고 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았던 지 난날을 참회합니다. 알고 보니 그대는 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대의 허물 이 나의 허물이고 그대의 장점이 나의 장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없는 소중한 하나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들어내면 나의 장점이 더 빛났고 허물을 나의 것으 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면 그것이 바로 정 화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당신을 신뢰하는 것이 나 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꼭 그렇게 만나야 할 사 람입니다. 이제는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사랑합니 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호듯하게 바 라봅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수 록 나의 가슴에 점점 사랑이 차오릅니다. 나의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습 니다.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에 는 고마운 인연 밖에 없습니다. 나의 거울 임으로 그 누구도 불신하거나 경계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일깨워주는 좋은 인연뿐입

니다. 행복 가족 캠프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노래를 가슴으로 부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력처럼 두 사람이 하나 됨을 느낍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 하세 요.” 하면서 서로가 지는 미움과 아픔이 녹아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잊었던 또 하나의 나를 다 시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安東權氏宗報 I 宗示: 송조이념확립·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오윤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02585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 (054)854-2257 테사묘 연락처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 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오복, 권혁재
기 자	권영건, 권혁재, 권경일, 권범준
자문위원	권충달, 권인호, 권영환, 권영성, 권오창, 권태현, 권대정, 권오일

헌성금·회비·광고료·종보구료 등 대중원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 협 317-0009-7471-41 예금주:안동권씨대종원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